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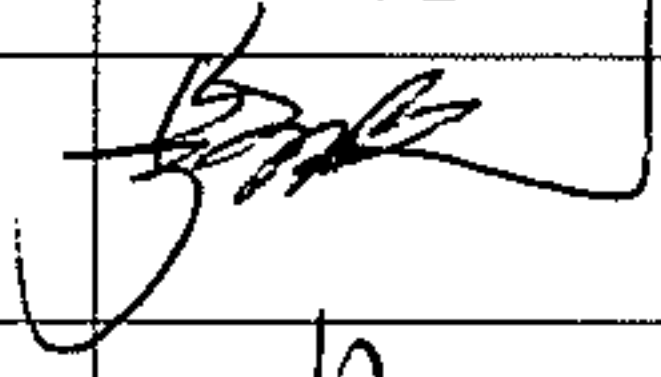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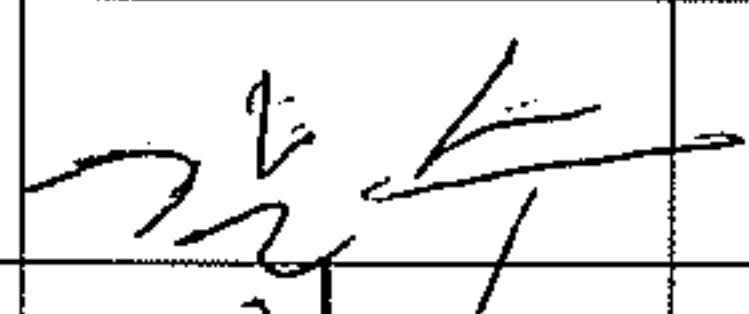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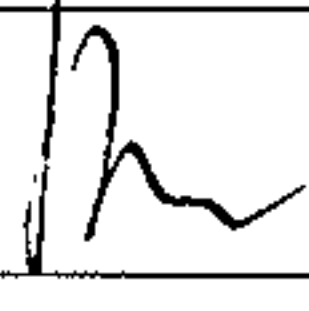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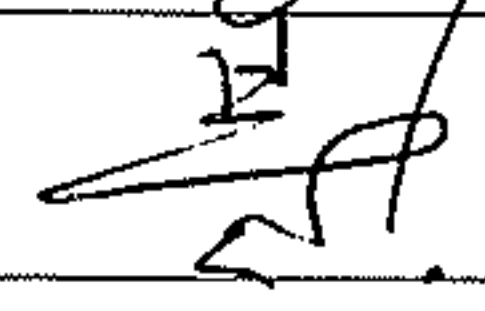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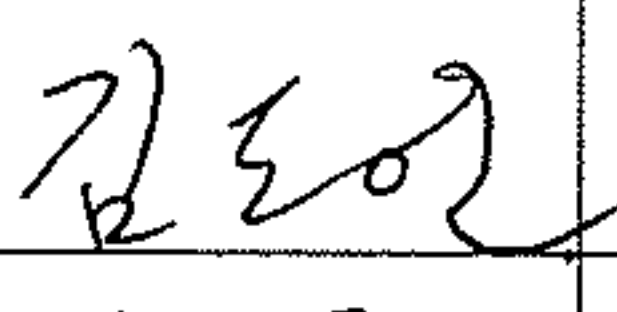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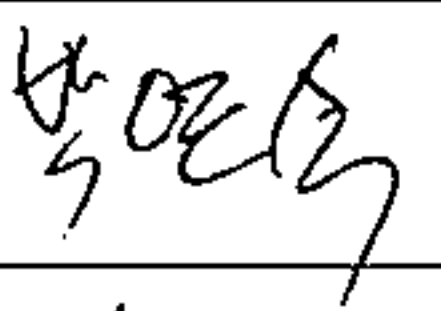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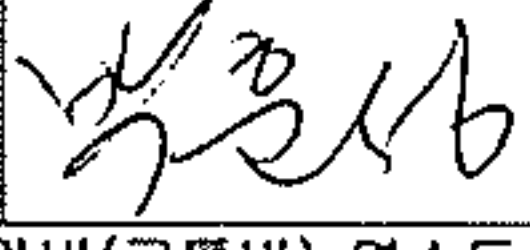
## 제21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회

1. 일 시 : 2012. 10. 30(화) 11:00

2. 장 소 : 금강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 3. 심의 및 자문사항

-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안) : 별첨 원안과 같이 심의합니다.
- 금강대학교 2012학년도 추경예산(안) : 별첨 원안과 같이 자문합니다.
- 금강대학교 2013학년도 예산(안) : 별첨 원안과 같이 자문합니다.

성명	서명	가, 부	성명	서명	가, 부
최병학		가	김용태(갈수)		가
서문성		가	김창근(월도)		가
이원식	이원식	가	윤재철(갈웅)		
최종석		가	김병두(도연)		가
박연석		가	배진문	배진문	가
박훈성		가			

\*외부인사의 경우 거마비(교통비) 영수도 서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제21차 대학평의회 회의록

일시 : 2012. 10. 30(화) 14:00-17:0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최병학의장, 서문성평의원, 이원식평의원, 최종석평의원, 박연석평의원, 박훈성평의원, 김갈수의원, 김월도의원, 김도언의원, 배진문평의원 이상 10명 >

< 배석자 : 민주영 이상 1명 >

< 불참석자 : 윤갈웅평의원 이상 1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21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평의회는 재적평의원 11명에 참석평의원 10명으로 대학평의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에서는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심의하고, 2012학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학년도 예산(안)을 자문하고자 이렇게 본 평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본 회의 >

**사회자** :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최병학 의장** : 멀리서 오신 세분의 스님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금강대학교학칙 시행세칙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대학평의회에 처음 참여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요식적 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렸고,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현재 종단스님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평의회는 학생부터 학부모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관세사, 행정고시 몇 명 붙었다고 금강신문에 광고하는 효과는 수백억을 쏟아 부은 학교에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삼성SDS에서 컨설팅 받은 발전계획으로 종단은 달라지길 기대했지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도언 평의원** : 삼성SDS에서 컨설팅 받은 내용은 학교 간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주시고, 특성화부분,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큰 테두리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장**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교는 외국어교육과 2006년부터 5급 고급공무원 양성에 그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외국어와 관련되는 교육방향은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왔었고, 현재 관세사반, 세무회계사반, 공공인재양성센터를 통해 7급 공무원 양성으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현재 예산을 검토한 결과 고급공무원의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초기에는 서울 초일류 학원수준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실천노력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내부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최병학 의장** : 현재 예산이 많이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비도 많이 줄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지원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한 배를 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교수들 또한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종단이 어렵게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불만이 나오면서 종단의 책임으로 전가시킨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모두 이야기해야 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원식 평의원** :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졸업생의 산출부분이 미약했다는 것은 인정하며 노력을 보다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학과개편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학의 진로가 만만치 않아 행정과 접목하였지만 학생들의 부담가중 등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총장이 바뀔 때마다 초기 삼성SDS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안됩니다. 종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위해서 서울에 있는 명강의로 수업을 이끌어주고 기폭제를 마련해야 했지만 현재 소극적입니다. 또한 그와 관련한 결과도 너무 미약합니다.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면 자연히 홍보효과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도연 평의원** : 예전에는 법인전입금이 60억~70억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55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장기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간부들끼리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 고시반이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특성화부분이 있다면 종단과 상의하여 심도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대학에서 성공한 특성화부분이 있다면 이를 가져와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순간순간 맞추는 형태, 기득권에 편승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학생들의 특성화부분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학생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배진문 평의원** : 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대학에 들어올 학생이라면 충분히 서울에 유수대학에 들어갈 실력입니다. 현재 장학금 내용도 이번에 바뀌고 있어 학교측과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일본어, 중국어 등은 올해 선택과목이 되었으며, 행정학과의 경우 인터넷강의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특성화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에 23명 정도가 자퇴 및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학생들은 장학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자퇴할 생각이 많습니다. 신입생은 내신성적이 3등급에서 최저 7등급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저 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들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이 아닌 소수정예의 대학으로서 신중히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버스종편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학과자체의 커리큘럼의 부족으로 타 과목을 듣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 합니다.

**김월도 평의원** : 학생의 뼈아픈 이야기를 듣고 반성해야 합니다. 정원만 채우기 위한 것, 들을 과목이 없어서 다른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예산으로 들어가서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석 평의원** : 금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수주금액은 5억7,4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특성화교육에 사용됩니다. 이 수주금액으로 공무원 7급반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교육 이수시 기숙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도연 평의원** :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먼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이원식 평의원** :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표를 가지고 대학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교직원의 인건비 등으로서 사용하지 못하며 오직 학생들에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학교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취업에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최병학 의장** : 본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5년째 수주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부 인프라구축에 30%를 사용하였고 올해는 취업에 35%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그 사용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김월도 평의원** : 실적보고는 잘 된다는 평인가요?

**이원식 평의원** : 네, 잘된다는 평입니다. 그러하기에 5년 연속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 <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안) 심의 >

**사회자** : 그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사항으로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최병학 의장** : 그럼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대학원교학팀장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교학팀 박훈성 팀장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설명)

**김월도 평의원** :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며 모든 대학이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봅니다.

**최병학 의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자문사항으로 2012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박연석팀장 2012학년도 추경예산(안) 설명)

**김도원 평의원**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은 얼마이며 내년예산에도 포함되었나요?

**박연석 평의원** : 2억4천만원 정도이며 올 2012년 회계연도에 모두 끝나므로 2013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단기수강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연석 평의원** : 외국어집중과정이 변동되는 것으로 이는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대체되느냐에 따라 늘기도하고 줄기도 합니다.

**김월도 평의원** : 예상임대수입이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학 의장** : 이번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정확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천태문화예술관 등의 신축으로 학교의 임대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이원식 평의원** : 학교 신축기숙사와 관련하여서도 외부유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였으며 현재 한겨레외부캠프 유치 등 부수수입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발전기금에서 2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원식 평의원** : 생각보다 많은 기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개교 10주년이후에 신도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현재 교직원도 조금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에 10억정도 약정해주실 분도 있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다른 대학에서는 기금을 모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경우 매년 100억씩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종단이 출연하였으므로 기금을 모으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종단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종단이 원하는 바로 학교가 운영되면 스님들도 나설 것입니다.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갈수 평의원** :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신임교원 2명, 시간강의 강의료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일부러 채용안하신건지, 없어서 안한건지, 차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박훈성 평의원** : 신임교원을 당초 뽑아야했지만 학생수가 65명 증가하였다고 크

게 교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뽑지 않았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외부강사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서문성 평의원** : 학기 초에 폐강이 되면서 자연감소하였고 어느 대학이든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강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을 리뷰할 필요는 있습니다. 글로벌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도 수강할 필요가 있으며 버스는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노선변경으로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협의 중입니다.

**김월도 평의원** : 과목선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과목을 신설하고 폐강시키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김도연 평의원** : 올해 증설된 것이 회계학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면서 전임 강사를 쓰지 못하고 시간강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공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지만 3년 후 취업과 연관되어서 다시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문적인 취업이나 학생들의 향후 교육방안, 특성화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회계학과는 어떤 목적으로 신설되었는지, 창출효과는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합니다.

**서문성 평의원** : 회계학과는 현재 회계사, 세무사를 양성하는 곳으로 기타 유사하게는 관세사반, 세무회계사반,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실시하는 국제무역사도 양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초빙교수 강의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기타 이외 학생들은 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 평의원** : 통상통역도 인턴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서문성 평의원** : 국회인턴, 해외인턴 등 많은 곳에 인턴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인턴에 선발될 경우 많은 특혜와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의 경우 인턴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려하고 있으며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도연 평의원** : 총장님의 지시를 받고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면 우수한 기업과 조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부들의 몫입니다.

**서문성 평의원** : 현재 성공취업육성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멘토제를 통하여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최병학 의장**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추경예산(안) 자문을 마치고, 2013학년도 본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박연석팀장 2013학년도 본예산(안) 설명)

**김월도 평의원** : 특수대학원 수입이 9,900만원입니다. 이에 경상비는 얼마입니까?

**박연석 평의원** : 경상비는 9,000만원입니다.

**김월도 평의원** : 900만원 순이익인데 특수대학원을 신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최병학 의장** : 초기부터 많은 이득을 낼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목적대로 유지된다면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도언 평의원** : 너무 많은 것을 벌려놓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월도 평의원** : 천안과 가깝다고 생각하여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학교재정을 위한 것인지, 현재 일하는 연구원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평의원** : 우리학교는 종합학교로서 뛰어난 강의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나아가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도언 평의원** :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30년, 40년 후에 역량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김월도 평의원** : 특수대학원에 비학위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예산에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최병학 의장** :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언 평의원** : 종단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뺄 것은 빼고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대학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가 예산과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알뜰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계속 불신만 쌓여갑니다. 안되는 학생은 뽑지 말고 능력이 되는 학생을 뽑아야 합니다.

**김월도 평의원** : 비록 종단쪽에서 특수대학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도연스님의 말씀을 뼈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산단 전입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석 평의원** : 산단전입금 5,000만원은 HK사업비의 간접비로서 본교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산단에서 학교에서 전입해주는 것입니다.

**김월도 평의원** : 운동장 잔디 구장 조성은 확정된건가요?

**박연석 평의원** : 아닙니다. 5억정도 사업에서 정부가 3억, 본교가 2억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월도 평의원** : 저는 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각도서관의 예를 들면 그때 계신 분들께서 의견개진을 못하여 지금의 상황에 왔습니다. 도서관을

크게 짓는다고 하여 학교에 이득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못하였는지 답답합니다.

**김도연 평의원** : 처음에는 좀 더 많은 강의동을 짓고 기숙사를 짓는게 시급하였는데 원각도서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소리를 더 크게 내었다면 학교에 이득이 많았을 것입니다.

**김월도 평의원** : 말단스님들까지 어렵게 고생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한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이 이야기한 것도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도서관 또한 책임지려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천연잔디는 다시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장** : 그럼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2012년도 추경예산(안)과 2013학년도 본예산(안) 자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월도 평의원** : 오늘 회의에서 스님들이 이야기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학교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장** : 네 알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멀리까지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21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칩니다.>